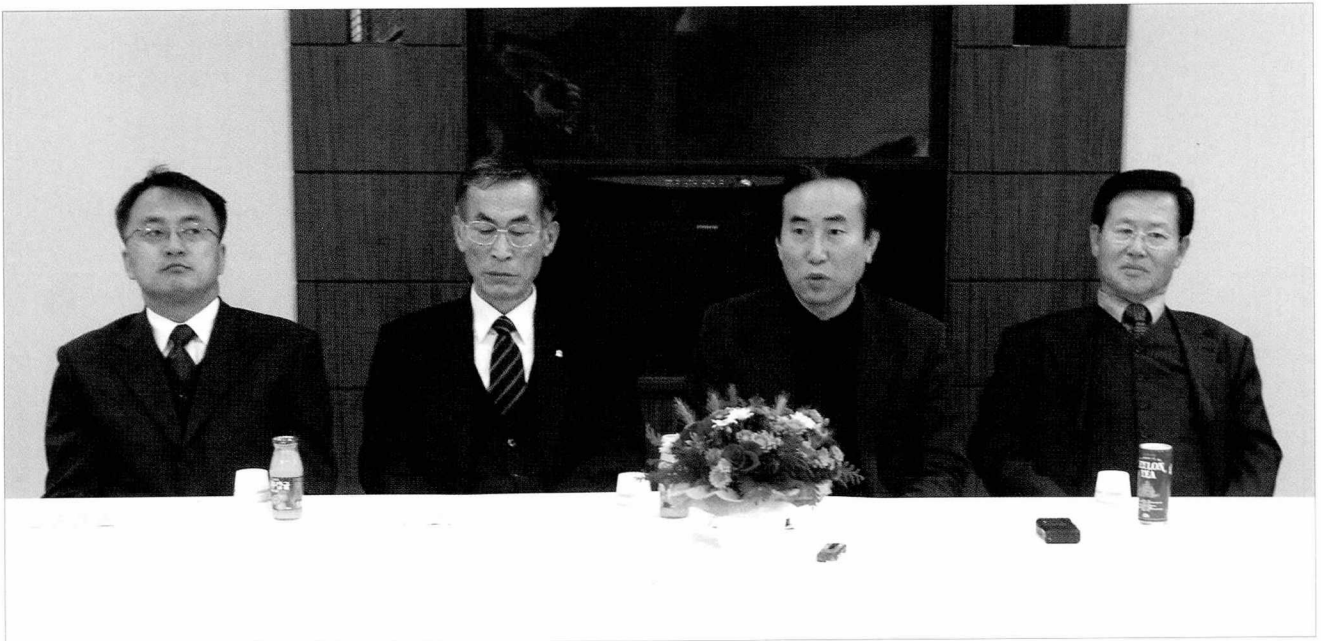


기술력 담보하고 혁신성 · 장인정신 담았다



지난해 12월9일 한국후지제록스 쇼룸에서는 '2004 아시안프린트어워즈' 에서 금상을 수상한 4개 업체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김광춘 광인사 사장, 류창우 시스아웃 사장, 류명식 해인기획 사장, 이광옥 홍보컴 사장과 인쇄관련 매체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수상업체들은 작품의 기술적 성취도를 기본으로 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정신이나 혁신성, 각 작품을 완성시키려는 장인정신 등이 심사의 주된 기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수상 결과가 회사의 탁월한 기술력을 대외에 알리는 한편,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기술력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국제적인 프린트어워즈가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체 개발 레인보우프린팅 세계에서 인정



광인사 김광춘 회장

보안인쇄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광인사의 김광춘 사장은 “광인사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특수인쇄)을 취급하는 회사로 제품의 99%가 증권류이다. 자체 연구 기술진에 의해 레인보우프린팅 방법을 개발하여 유가증권 제작에 활용하고 있으며 2003년 벨기에로부터 바커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디자인 보안인쇄의 정확성과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출품한 제품은 디자인에 한국적인 정취가 물씬 풍기는 ‘농약’을 접목, 높은 점수를 받게 됐지 않았나 짐작한다”고 덧붙였다.

오프셋 인쇄 기준 유지하려고 노력



시스아웃 류창우 회장

디지털프린팅 일렉트로그래픽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시스아웃의 류창우 사장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이처럼 큰상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한 후 “가변데이터 활용이라는 디지털 인쇄의 특성보다는 오프셋 인쇄와 같은 인쇄기술 기본에 충실히 하고 기존 책이 담고 있는 기준을 고수했던 것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존 인쇄물과 유사한 품질을 실현한 가운데 사진뿐만 아니라 배경을 조잡하지 않고 새롭게 꾸민 시도가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CTP 도입 후 제품 품질 더욱 향상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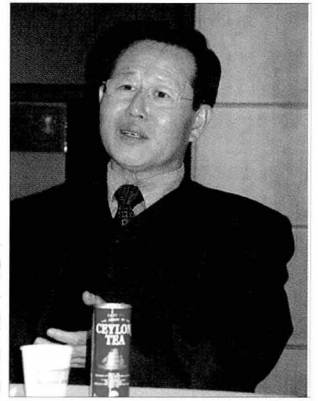


해인기획 류명식 사장

리플렛 폴더 부문과 카탈로그·서적·잡지 부문에서 각각 금상을 수상한 해인기획의 류명식 사장은 “2003년에는 특수공정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CTP 도입 이전이었다”며 “CTP 도입 이후에는 카탈로그, 리플렛 등 대부분을 CTP를 활용해 작업했으며 해상도를 높이는 등 고급 인쇄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온 것이 수상의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2003년 동상 수상에 이어 2004년에도 두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고객업체들이 더욱 만족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입지를 강화할 수 있고 향후에는 매출 증대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엽 최초 알루미늄 호일 인쇄 실현

포스터 쇼케이스 카드 컨스트럭션 & 모바



홍보컴 이광옥 사장

일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홍보컴의 이광옥 사장은 “홍보컴은 PVC, PET 등의 비종이 재질이나 코팅용지에 주로 활용되는 UV 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이번에 출품한 작품도 UV 인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작품이다. 특히 매엽 인쇄로는 세계 최초로 비흡수 재질에 알루미늄 호일 인쇄를 실현했다”며 “특히 2년 연속 같은 부문에서 동일한 광고 업체의 작품이 수상해 최우수 협력사로 지정됐고 고객사에서 더욱 좋아하는 등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업체들은 2003년에 이어 2004년 대회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고도의 기술을 적용, 수상을 기대했던 작품이 아닌 의외의 작품이 선정되는 경향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하우가 축적된 각 업체의 독특한 기술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한 보편적인 기술의 충실도에 더 많은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도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는 스크래치, 구김, 뒷문음 등과 같은 흠결이 적은 제품을 선택, 최후 공정까지의 완벽한 마무리에 중요한 심사 기준이 적용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수상을 통해 업체의 위상이 제고되고 특히 고객업체에 대한 이미지 강화에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향후 신규 수요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조갑준 차장)